



13. 취업진로지도 상담·코칭 기법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앞에서 주저하는 사람들 ▪ 취업준비 유형 및 대표적인 상담이론 ▪ 진로 상담과 코칭 가이드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에 대한 조언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 취업준비유형을 알고, 대표적인 상담이론을 통해 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 ▪ 취업진로 상담가이드를 알아보고 코칭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진로지도의 첫 걸음>

진로지도 상담 코칭 기법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볼 겁니다. 취업이나 진로를 준비하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구요 선택 앞에서 주저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로상담 가이드 그리고 대표적인 상담이론에 이르기까지 한번 이야기 나누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선택 앞에서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 앞에서 갈등합니다. 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 라고 까지 이야기 하는데요 뭘 먹어야 될지 우리학생들이라면 대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서 이르기까지 전공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해야 될지 그저 꿈을 따를지 현실을 따를지 이런 햄릿이 겪어야 될 고민을 이 시대에 청년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수업을 계속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선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선택보다 태도가 중요하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무료 상담을 재능기부차원에서 이메일 보내 주시는 분에게 보내드립니다. 그 중에 이제 한분이 캐나다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상담 까지 하러 오셨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삼십대 중반이고 토익은 만점이고 해외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을 하고 아주 이제 그 분야 회계 이제 재무 이런 쪽에 경력도 있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떤 직업을 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은 알려드리는 일이 아니라 제가 어떤 직업을 준비하고 커리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탐색하는 과정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직업을 만들어나가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전공, 적성, 흥미, 그 동안의 커리어, 인생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요소가 되어야 좋습니까라고 했더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성격이 조금 내향적이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속기사가 하고 싶은데 이게 될지 말지만 찍어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되게 난감했었던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워낙 직업이 또 많다 보니까 또 갈등도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 탁 찍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 법도 합니다. 하지만 직업은 그렇게 찍는 개

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을 찾을 때도 많은 사람이 운명 같은 사랑을 원합니다. 운명 같은 남자, 운명 같은 여자를 찾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찾았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이어나가는 그 현실 속의 노력 두 사람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운명 같은 직업 찾았으면 좋겠다고 많은 학생들이 생각합니다. 뭐 직장인들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이니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명 같은 직업을 자꾸 찾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딘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현실에 직업이나 현실의 일은 등한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운명 같은 직업을 찾는 개념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개념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완성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청춘 멘토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사실 제가 하는 상담답변에 2~30% 정도가 그렇게 마무리 답변을 많이 합니다. 선택이 운명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바꾸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내가 운명을 뛰어넘을 힘을 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딘가 숨어있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자꾸 현실을 등한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바른 자세와 태도를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바른 자세와 태도가 뭐냐 라고 이렇게 아마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외적 태도 외적으로 들어나는 어떤 모습 건강함, 긍정적,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내적 태도 신념 믿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비전 뚜렷한 비전 그 안에 내적인 사람에 대한 믿음, 자신의 대한 믿음, 자존감 그렇죠.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로지도의 이해>

취업준비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보면 취업진로 상담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진학 상담, 취업 상담, 직업 적응상담입니다. 상담이나 코칭을 진행하기 전에 상담의뢰자와 서약서에 서명을 하면 동기를 고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의 취업준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표와 스펙 유형으로 구분했을 때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목표는 높고, 스펙은 낮은 드리머형입니다. 다음으로 목표와 스펙이 모두 높은 완벽추구형입니다. 목표는 낮고, 스펙은 높은 것은 현실형이며, 목표와 스펙이 모두 낮은 것은 비현실형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상담이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상담이론으로 정신분석 상담이론, 개인 심리 상담이론, 게슈탈트 치료이론, 인간중심적 상담이론, 행동주의적 상담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트에 의해 창시된 정신분석상담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어렸을 때의 경험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빙산의 대부분이 물 속에 잠겨 있듯이 마음의 대부분은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 속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적응을 방해하는 요소를 무의식 속에서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억압된 충동으로 보는 상담이론입니다. 정신분석상담이론의 상담 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의 동기를 각성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하여 의식 수준에서 행동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아德勒의 개인 상담이론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며, 인간의 성격은 유전과 사회적 상호작용

용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으로 피할 수 없으나 인간이 성숙하고, 성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취를 이루지 못할 경우 병적 열등감에 이르게 된다고 봅니다. 개인 심리 상담이론의 상담의 목표는 첫째, 개인의 자아개념을 바꾸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행동패턴을 바꾸고 증상을 제거하는 일보다는 인생목적, 자아개념,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둘째,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열등감과 낙담을 제거하며, 내담자의 관점과 목표를 수정하고 인생각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동기를 바꾸고 타인의 동등감을 계발시키며, 내담자가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게슈탈트 치료이론에서 유기체 욕구는 삶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지배적인 욕구, 전경과 그렇지 않은 욕구, 배경으로 구별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각 상황마다 전경과 배경의 의식적 식별이 명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욕구 표출이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 지표는 어떤 도덕적 규범이나 철학적 이상(ideal)에 따라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의 유기체적 욕구에 따라 살 때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게슈탈트 치료이론의 상담목표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를 잘 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식의 정신분석이 아니라 지금-현재-여기에 있음을 '알아차림'이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은 타인 혹은 환경과 잘 접촉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중심적 상담이론은 비지시적 상담에서 내담자 중심으로 인간중심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중요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아와 현실 간에 불일치가 이루어지거나 자아에 대한 지각이 이상적 자아와 일치되지 않을 경우 부적응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 이론의 목적은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간중심적 상담이론의 상담목표는 상담의 과정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방어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가치 조건들의 해제를 도와서 유기체적 경험에의 개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로 자아와 경험 간의 일치의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입니다. 행동주의적 상담이론은 1964년 미국심리학회 연차대회에서 크럼볼츠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이론은 파블로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 클라크 헐의 학습 이론으로 그리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론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행동적 상담이론에는 인간의 행동이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칙성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모든 행동이 오랜 학습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행동을 지속 시키는 환경적인 자극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적 상담이론의 상담목표는 잘못 학습되었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소거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새로이 학습하도록 내담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담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집단상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이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상담에 참여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는 상담기법입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집단상담 방법 및 실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꿈Job이 TIP>

취업진로 상담가이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조언과 더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변하지 않는 학생을 바라보다 보면 좀 답답하고 그런 생각들

이 들 겁니다. 제가 이제 한 강의를 외부강의를 특강을 많이 다니는 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학생들에 대한 애착과 믿음이 강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간혹 우리학생들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학생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않으셔야 겠죠 제일 앞단에 계신분이 이니까 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코칭이라는 것 바라본다고 하면 코치의 역할을 해 주시는 좋거든요. 학생들이 조금 잘못간다 라고 할 때 항상 왜 그런지 먼저 질문을 해주고요 코치라는 것은 잘 들어주시는 경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잘 들어 준다 라는 정말 누구나 다 알지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면서 경청해주고 밀어주시고 그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한 칭찬과 인정은 사실 이것도 쉽지 않지만 그나마 잘했다라고 하면 가능한 일인데요 더 어려운 게 사실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못했을 때도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그것을 진정한 코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코칭의 원칙을 세 가지로 본다면요. 모든 사람에게 첫 번째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해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 내부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답을 끌어내도록 만들어주는 것 코치의 역할이고요 세 번째가 파트너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혼자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대단이 중요하지만 같이 더불어서 파트너쉽을 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현명한 답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치가 파트너가 되어주는 것들 교사가 파트너가 되어주는 것들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진로상담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홉 가지 조언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조언입니다. 코치자신부터 교사 자신부터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일 자체가 마음 수양인데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채워야 된다 라고 해서 마음수양을 마인드풀리스라고 합니다. 마음이 충만한 상태 그렇죠 충만한 마음 상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계속 고민 해야겠죠. 사실 저도 고민하는 겁니다. 늘 똑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늘 그래서 명상하려고 하고 또 내 생각에 어떤 편견이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 들은 없을까 끈임 없이 질문을 던지고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것들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되는지 늘 마음을 수양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헬스트레이닝을 하듯이 마인드트레이닝이라고해서 마음도 다스려나가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첫 번째가 마음을 다스린다. 두 번째가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아마 현직에서 교과목만 운영을 하신 분들이 라면 진로와 관련한 이야기를 끌어낸다 라는 게 사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복잡하게 여러가지 것들을 알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언뜻 보면 쉽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부딪치는 학생들을 진로를 안내하거나 상담을 해주거나 코칭을 하는데 이게 아 이게 만만치 않게 변수들이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그 앞서서 진로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에게 탁 도움을 받으면 최고 좋죠. 가까이서 좋은 멘토가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책을 통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방송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그럼 혹시나 잘못하시거나 선생님이 좀 미진하거나 그래도 너무 서로 위축되어서 선생님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기록을 하고 왜 어떤 과정에서 좋았는지 그렇죠. 어떤 과정이 좀 부족했는지 무

었을 채워야 될지 이런 기록 일지를 세운다고 라면 아주 좋겠쥬. 그런 것 들은 책으로도 한 권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쥬. 그리고 세 번째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이렇게 연다는 것 그래야지 오픈마인드가 되어있어야지 내담자 우리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마음을 열고 이야기 하거든요. 내 마음이 이렇게 빗장을 걸어두고 있으면 상담자가 그리고 우리학생들이 찾아오면 금방 알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 우리 교수님은 별로 마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쥬. 선생님이 직접 그렇쥬 따뜻한 인사말 건내 주고 직접 차도 이렇게 내어주시고 공간도 그렇쥬.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쥬. 그 다음 네 번째가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 이 친구가 가지고 온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서 정답을 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 정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선생님이 꼭 짚어서 야 너 그것도 못하니 일로가야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마음이 굴뚝같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코치라고 한다 라면 조금 참고 그 학생에 입장에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질문을 통해서 잘 유도해주는 것이 고단수 코치라고 볼 수 있겠쥬. 그렇쥬.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야깃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 학생들이 찾아왔는데 진로상담 고민을 하는데 이 화재 거리 라는 게 제한적이어서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야 될까 이야기가 아주 잘하는 친구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할 수도 있쥬. 물론 또 이야기만 잘하는 친구도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로상담과 연관이 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야깃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그 학생들한테 먼저 직업 흥미검사, 우리 직업가치관 검사, 진로 발달검사 이런 검사들을 가지고 선생님 테이블에 만들어 놓으셨다가 오면 이런 거 한번 해볼래? 또는 미리 이제 검사해오도록 해서 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주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주제에 아주 포커싱을 맞추어서 효과가 있을 수 있게 진로상담을 나갈 수 있겠쥬.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잠깐 잠깐 포즈 그렇쥬. 멈춤이쥬. 그렇쥬.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이 이제 사실 술술 이야기 잘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때로 조금 유보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냥 멈춰있는 겁니다. 정지하는 것.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한 일초도 정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적막이 흐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쉽지 않쥬. 하지만 영화 혹시 여러분 굿윌헌팅이라는 책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렇쥬. 월이라는 이 청년을 상담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말을 안 하니가 그렇쥬. 이 선생님도 똑같이 한 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침묵을 지키거든요. 이 침묵이 그럼 쓸모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안에 엄청난 대화들 엄청난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쥬 그래서 잠깐 잠깐 중간에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멈춰주시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 저는 펜싱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내담자의 마음을 깊숙하게 건들이는 겁니다. 자 선생님 메모해보세요. 필기구하고 메모지 가지고 한번 메모해보세요. 제가 마음이 열렸다라고 생각할 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니가 정말 그 문제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왕따 문제든, 학원 문제든, 진학 문제든, 전공 문제든, 학업을 중단할까 말까 하는 고민에 대한 문제든 우리가 이제 다들 불안해서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거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두려움에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가 대부분 이렇게 마음을 열어 났을 때 깊숙하게 찌르는 거쥬. 그래서 원래 상담이나 코칭이라는 것이 강의하고 조금 달라서 일대일로 하다 보니까 깊숙하게 들어 갈 수 있을 때 들어 가야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이

상담자 스스로 학습을 지속해야 됩니다. 학과 교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사한 공부들을 학습을 지속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학생들 더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시대변화 흐름도 읽어봐 주시면서 우리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에 이야기들 전해주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학생들이 어떤 행동부터 시작할건지 그냥 보내지 마시고 행동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상담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어떤 행동부터 실천할 건지 나한테 그걸 계획을 보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고 계획표 실천행동 계획표를 받아 보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뭐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도 있고 출력해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자필로 써가지고 받아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고 아 괜찮다고 끝내는 것 보다는 그 학생이 내담자가 찾아 왔을 때 하나, 하나 꼼꼼하게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다짐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제가 오늘 이렇게 아홉 가지 조언 드렸는데요. 기억나세요? 금방 가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첫 번째로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자는 상담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내 마음도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태도도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마음을 여시고 정답을 조금 유보하고 스스로 깨달았다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섯 번째 다양한 자연스러운 진로와 관련한 이야기 거리를 배우고 익히시고 나누시고요. 여섯 번째가 중간, 중간 잠깐 멈추시고, 그 다음 일곱 번째가 내면에 깊숙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집단상담도 괜찮고 개별상담을 통해서 특히 들어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스스로가 좀 부지런히 학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꼭 마지막에 체크해 가지고 하시면 훌륭한 코칭이 되실 겁니다.